



제이엠조형산업, 춘향장학기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노암농공단지 소재 (주)제이엠조형산업(대표 김재이)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제이엠조형산업은 조형물 및 구조물 제작 설치 전문업체로 김옥경 대표와 김현기 이사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기부 등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기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이 대표는 “장학기금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재단 이사장)은 “김옥경 대표께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뜻이 더 많은 지역의 꿈나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학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카페 고살 등, 노암동에 김 선물 세트 100상자기부

남원시 노암동 관계자는 관내 카페 고살·청소방역업체 차움(대표 오쌍섭·오종하)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에 김 선물 세트 100상자를 기부했다.

오쌍섭·오종하 대표는 “쌀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 선물 세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소중한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설 명절 조합원 떡국떡 세트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조합원(7,400여명)에게 떡국떡 세트 전달했다.

떡국떡은 남원시와 남원농협 관내 농업인들이 남원농협 미국종합처리장(RFC)과 계약 재배를 통해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남원시 공동 브랜드 쌀 참미로 만들어 그 의미를 더했으며, 2024년 연말에도 서울 향우회원에게 쌀 홍보 및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과 군 장병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

박기열 조합장은 “남원농협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조합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국떡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신임 국장 4명, 지역 장학금 400만원 기탁

정읍시 신임 국장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신임 국장 4명으로부터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탁에 참여한 이는 고정희 문화행정국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 김진욱 도시안전국장, 손문국 의회사무국장이다. 이들은 민생안정지원금에 사비를 더해 뜻깊은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정읍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신임 국장들의 나눔은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며 이들의 기부가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읍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를 높이며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향 전북 위상정립·예술인 활동무대 확장 기여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예술·관광상 수상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나경균 사장이 14일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예술·관광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북의 문화예술·관광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한 것으로, 나경균 사장은 2023년부터 Jedia누벨비그 영화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예향(藝鄕) 전북의 위상 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예술인들의 활동무대 확장에 기여해왔다.

또한 2024년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역사회 공헌활동



의 일환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제’ 행사는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등 전북지역 예술발전의 미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경균 사장은 “전북과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북의 발전과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무주경찰서 방문 격려

전북경찰청 최종문 청장이 14일 무주경찰서를 방문해 박종근 무주경찰서장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공 직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는 등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종문 청장은 경찰서 치안 현황과 추진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이어 ‘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다.

최종문 청장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무주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현장과 소통하고 가장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청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시 기자

부인회 남원지회,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사)한국부인회 전북지부 남원시지회(회장 윤명순)에서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인회는 여성의 자성과 자립심 고취, 정의 사회와 양성평등 구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원시지회는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 이불, 떡 등의 물품 기부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 12월 남원시지회에서 송년회를 맞아 추진한 ‘행복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윤명순 남원지회장은 “이번 기부는 회원



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통한 뜻깊은 기부인 만큼 남원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부인회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나눔에 동참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복지과(063-620-633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고원 협동조합,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고원 협동조합(대표 박천창)은 1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전달식에 참여한 박천창 대표는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에 대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진안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준성 이사장은 “진안고원 협동조합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 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고원협동조합의 지역의 농특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단체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중앙일렉파워, 남원 죽향동에 라면 40상자 기탁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윤자)는 지난 13일에 (주)중앙일렉파워(대표 신창섭)에서 라면 4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렉파워는 지난해에는 전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전동 리모컨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신창섭 대표는 “이번 나눔으로 이웃들이 설 명절을 조금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윤자 죽향동장은 중앙일렉파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성금품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윤봉음,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윤봉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이하 윤봉음지사협)가 독거 및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윤봉음 4개 봉사단체(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이 월 2회 맛있게 조리해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생활관과 사들과 윤봉음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면서 취약계층의 안부까지 살필 수 있는 일석야조(一石二鳥) 사업이다.

한 어르신은 “음장님이 직접 찾아와 반찬을 챙겨주시니 매번 너무 감사하다”며 반찬이 오는 날 만큼은 정확히 기억하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은주 윤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효자라며, 올해도 1일 1가구를 직접 찾아뵙고 안부까지 살피면서 소통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정읍시에 1000만원 성금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은 지난 13일 정읍시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기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복지 향상과 더 나은 정읍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고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선화 김제 용지면장, 새해맞이 경로당 순회 방문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임 박선화 용지면장이 부임 첫 일정으로 지역 내 경로당 37개소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부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으며, 동과 방지를 위해 수도 계량기 점검 등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한파가 우려되는 시점에 주민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따뜻하고 행복한 용지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들은 “용지면장 취임을 축하드리며,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2025년 을사년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임 면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